'두꺼비 정신'을 상기하면서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20주년에 즈음하여 -

이정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두꺼비는 뱃속에 알을 품고 뱀을 찾아 나선다고 한다. 뱀을 만나면 뱀 앞에서 죽기 살기로 약을 올린단다. 바싹 독이 오른 뱀은 두꺼비를 잡아먹는다. 그러면 뱀의 뱃속에 들어간 두꺼비의 알은 뱀을 자양분으로 해서 부화하여 다시 두꺼비로 세상에 나온다고 한다. 뱀은 본능적으로 이를 알지만,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두꺼비를 잡아먹는다.

1983년 9월 30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하 민청련)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두꺼비'가 되고자 탄생했다. 이들은 과거의 민주화투쟁 경험과 성과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운동 이론을 체계화하고, 운동 주체를 조직화해야 한다는 역사적 요구를 쫓아 민주주의, 민중의 생존권 보장, 그리고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민주, 민권의 궁극적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노동 · 지역 · 청년운동 벌여

민청련은 억압받는 제3세계 민중의 일원으로 민족사의 전진에 앞장 서야 할 청년의 임무를 확인하며, 출범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한다.

· 민족통일의 대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참된 민주정치는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

· 평등하고 인간적인 생활을 위한 민주자립 경제가 이룩되어야 하며, 부정부패 특권 경제는 마땅히 청산되어야 한다.

· 역동적이고 건강한 민중의 삶을 위하여 자생적이고, 창조적인 문화, 교육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 국제평화와 민족 생존을 위해 냉전체제의 해소와 핵전쟁의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민청련의 주요활동으로는 노동운동, 지역주민운동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전두환 정권에 대한 대중적 · 공개적 투쟁은 1985년 9월 조직원들의 대대적인 검거로 위축되었지만 '고문철폐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조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일하는 청년 · 노동청년'이 중심이 되는 청년대중운동을 표방하였으며, 88년 9월에는 사무직 노동청년들과 결합을 꾀하여 '민주화운동 직장청년회 준비위원회', 지역주민운동과의 결합을 위하여 '주민청년위원회'를 결성하

였다. 또한 부설 '민족민주운동연구소'를 만들어 청년학교를 개설하고 기관지 '민주화의 길' 등을 통해 청년대중을 조직하는데 주력했다.

1992년 2월 청년 민주운동의 연합체인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가 창립되자, 민청련은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해 9월 산하 조직들을 새 조직에 가입시키고, 10월 12일 본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했다.

민청련의 여러 활동 중에서도 1985년 전두환정권이 행한 일련의 탄압은 민청련의 상징적 위상을 말해주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1985년 7월 중순 경 서울대에서 김병곤, 민청련 대표 이범영, 몇 년 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황인하가 EYC(한국기독청년협의회) 대표로 참석하여 대학생들과 연대방안을 논의하였다. 이것을 빌미로 당국은 이들을 '삼민투(민족통일 · 민중해방 · 민중해방 투쟁위원회)'의 배후로 지목 · 연행하여 결국 김병곤 민청련 상임위원장을 구속하기에 이른다. 그 해 9월 10일 민청련 김근태 前 의장과 이을호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민청련에 대한 조직적 탄압이 시작되었다.

고문과 조작으로 민청련 와해하려

9월 4일 새벽 5시 30분경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의해 강제 납치된 김근태 씨. 9월 7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나 20여 일 동안이나 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안타까워만 했던 그의 부인 인재근 씨는 26일 오후 2시 30분 검찰 송치 과정에서 남편을 처음 보았다.

하지만 검찰청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김근태 씨를 본 순간 인재근 씨는 반가움과 함께 놀라움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남편은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검찰청 5층 에서 4층 대기실까지 내려오는 동안, 9월 4일부터 20일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온몸을 꽁꽁 묶인 상태에서 전기고문, 물고문 등 온갖 고문을 당하여 걸음도 간신히 걸었으니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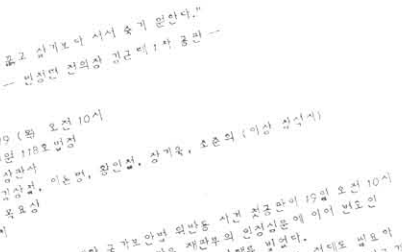
김근태 씨에 대한 잔악한 고문은 민청련의 활동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탄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새삼 확인시켜 주는 사례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민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민주인사를 고문함으로써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자백 받아 사건을 날조하는 기만적 사기극을 벌임으로써 민중민주운동

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기대를 꺾어버리려는 얄팍한 계산 때문이었다.

즉, 민주화운동세력을 '관제 공산주의자'로 만들어 국민과 이간시키려는 술책이었던 것이다. 특히 민주화운동세력들 가운데 민청련은 가장 조직적이고 활동적인 청년, 학생들의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를 강력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민청련은 각계 민주화운동세력들과 연대하여 고문정권에 대한 투쟁을 계속하였다. 법을 집행해야 할 기관인 치안본부가 애국학생을 좌경으로 몰고, 민주인사를 그들의 배후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불법·야만적 고문수사를 자행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 폭력적인 군사독재정권에 있었던 것이다. 1985년 9월 27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은 '이 땅에 비인간적 고문과 억울한 희생이 결코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문건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였고 이것은 이후 반독재 투쟁의 힘을 결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민청련은 조직적 투쟁과 함께 이른바 운동 이론의 과학화를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고 논쟁을 이끌었으며 이후 진보적 학계의 사회구성체논쟁 등을 촉발시키는 자극제가 되기도 하였다.


"우롱 말고 심기보다 사사 숨기 묻한다."
— 민청련 전의장 김근태 / 사 공판 —

○일 시 : 1985. 12. 19 (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 지방법원 178호 법정
○재판장 : 시 심 부장판사
○변호인 : 홍성우, 김상철, 이돈명, 황인철, 심기옥, 조준희 (이상 심선지)
신기하, 옥요정
○담당검사 : 고원지

민청련 전의장 김근태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등 사건 첫공판이 19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부 심리로 열렸다. 공판은 재판부의 인정심문에 이어 변호인 들이 방청자만을 앞의하는 박방에 이어지때 종간되는 사태를 빚었다.
인정심문이 끝난후 변호인단의 장기홍 변호사는 "재판공개원칙은 절대로 필요하며 방신방이나 정치범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고 검찰측 변호사는 "재판공개는 가족만 방청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방청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때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김근태씨의 부인도 있으므로 20여명에 이르는 고도관중을 내보내고 재판하라"고 항의하였다.
이어 김련지 검사가 5분 가량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는 동안 방청권을 얻지 못한 인간 방청자만으로 이사회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과 친지, 민주단체 인사, 민청련 회원 등 30여명은 법정 안팎에서 술렁거리며 "재판부가 공판에 인사, 민청련 회원 등 30여명은 법정 안팎에서 술렁거리며 "재판부가 공판에 인사, 민청련 회원 등 30여명은 법정 이때 검찰측 변호사는 "재판부가 공판에 인사, 민청련 회원 등 30여명은 법정 사람 모두가 방청할 수 있도록 큰 법정으로 장소를 옮길것이어 개우 들어올 수 있었다. 제거했다. 이때 부인 인재근씨등 7-8명이 출입문을 열고 재우 들어올 수 있었다.
(5분간 휴정)
변호사 : 기소된 후 20여차례에 걸쳐 피고인 첫번 신청을 했으나 출정 등의 이유로 첫번이 거부되어 첫공판 출정이 준비할 수 없었을니다. 재판에 출 이유로 거부되었다. 때문에 재판을 출정하여 대해 재판부에 두거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재판부에 두거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피고인에 대해 출정하라는 이유로 변호사 접견이 금지된 것이 심각한 권리 침해라는 이유로 기소된 이후에도 출정한 것이 하당한지 인정으로 출정을 해서 그런지와 있기를 요구합니다.
시 출문한 사실의 조회가 있기를 요구합니다.
검 사 : 검찰 조서의 20개항의 조사사실중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인하여 9개항만을 기소할 수 있었을니다. 나머지 11개항을 조사하지 못해 기소후에도 피고

민청련 20주년 기념문집 발간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소장하고 있는 민청련 관련 주요 사료는 '남영동 치안본부 인간 도살의 현장 기록 – 민청련 전 의장 김근태 씨의 탄원서 중 발췌', '민청련을 용공으로 몰기 위한 고문의 진상을 밝힌다', '김근태의 아내 인재근의 청원서' 등이 있다.

이들 사료는 항균 처리되어 본 사업회 사료관 서고에 보존되어 있다. 이후 이 기록물들이 사료관의 사료관리 일정에 따라 정리 관리되어 열람·활용될 수 있게 되면, 민청련의 활동을 연구하고 알리는데 일조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처럼 실천적, 이론적 활동을 해 온 민청련이 발족한지 어언 20년이 흘러 얼마 전에 20주년기념 문집이 발간되었다. 여기에는 창립선언문, 창립과정, 활동일지 등이 들어 있다. 물론 이것은 민청련 활동의 올바른 평가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앞으로 다양한 자료들의 수집과 분석, 관계자들의 각종 증언을 통해 민청련의 올바른 활동 내용과 그 의미, 역사적 위상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기억의 역사를 기록의 역사로'

민주화운동 자료를 수집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화운동자료관(Archives) 및 기념관 건립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해외자료 포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